

현안과 과제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과 시사점
- 대외 수출지형 급변과 트럼프 리스크

목 차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과 시사점

- 대외 수출지형 급변과 트럼프 리스크

| | |
|-------------------------|---|
| Executive Summary | i |
| 1. 최근 수출 현황 | 1 |
| 2. 2017년 수출 이슈 점검 | 2 |
| 3. 시사점 | 9 |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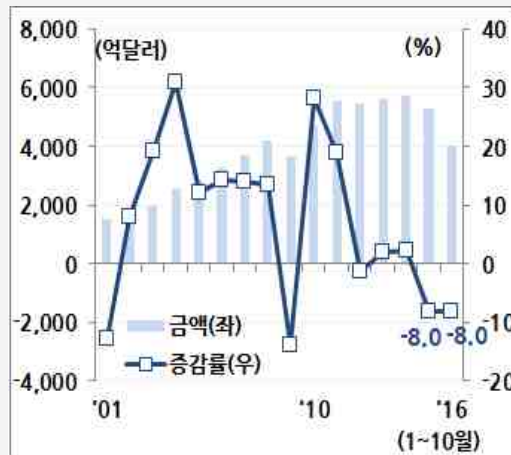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과 시사점
- 대외 수출지형 급변과 트럼프 리스크

■ 최근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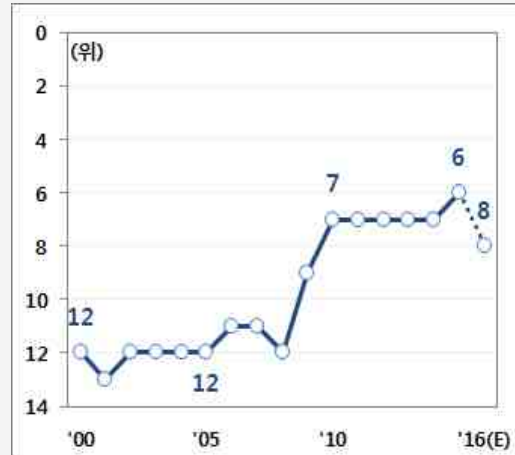
2016년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년 연속 지속된 한국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수출 환경 점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의 수출금액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순위 추이 >



자료 : WTO.
주 : 2016년 1~9월 기준.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

(1) 2017년 수출 이슈

①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으로 수출 회복 견인)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약 57.5%(2016년 1~10월 기준)의 높은 신흥국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화 약세 가능성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2017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

나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 가능성 등으로 연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귀환과 수출단가 상승 압력 발생)** 미국 경기부양 의지, 중국 공급과잉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기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미국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출 단가 상승시 구매력을 제약해 수출 물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④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 회복세 제약)**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가공무역을 통한 한국 제품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⑤ **(트럼프노믹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로 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를 강조함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 미국의 TPP 탈퇴가 전망된다. TPP 표류는 양자간 FTA에 집중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가전,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7년 수출 전망

(이슈 정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이슈들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 등이 가져올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수출 전망) 2017년 수출은 일부 통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돼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수출 이슈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2017년 수출 이슈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평가 |
|--------------------|------------------------------|----|
|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 | - 신흥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에 유리 | + |
| 원화 약세 가능성 | -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 + |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귀환 | - 수출단가 상승 압력 발생해 수출 금액 증가 | + |
| 보호무역주의 강화 | -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한국 수출 업종 타격 | - |
| 트럼프노믹스 확산 | - TPP 표류로 일본의 가격경쟁력 강화 기회 저지 | + |
| | - 한미FTA 재협상 압력 | - |
| | - 가전, 태양광, 2차 전지 산업 타격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의미.

■ 시사점

2017년도 수출 회복을 위해 첫째, 국내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협상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시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1. 최근 수출 현황

○ (연구 배경) 2016년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해가 될 전망이다이며, 세계 수출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하락하는 등 수출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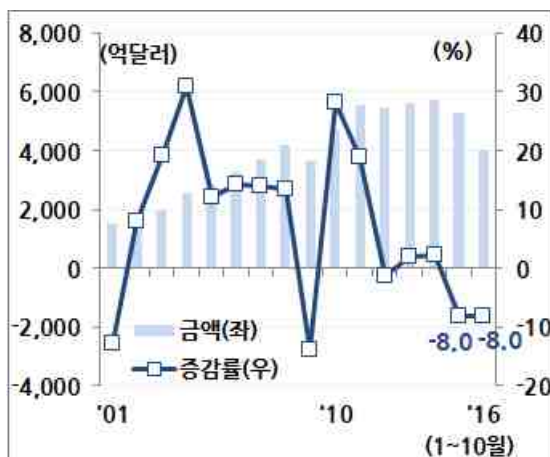
- 2016년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해로 기록될 전망

- 2016년 1~10월 기준 한국의 수출 금액은 약 4,0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
- 최근 수출 감소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파업, 신형 스마트폰 단종 여파 등으로 회복세는 제약

- 2016년 한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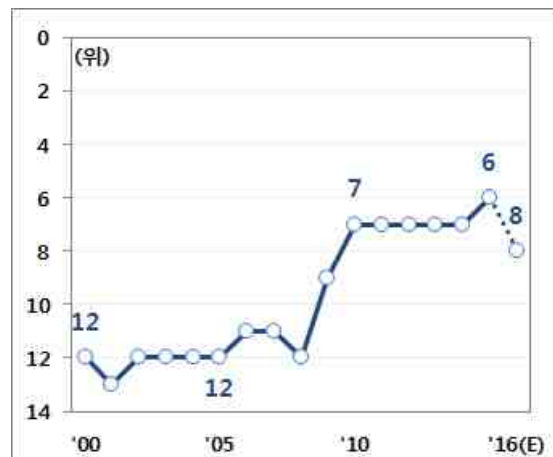
- 2016년 1~9월 기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은 -8.5%로 브렉시트 여파를 겪은 영국 -12.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감소율을 기록
- 2016년 한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전망

< 한국의 수출 금액 및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순위 추이 >



자료 : WTO.

주 : 2016년 1~9월 기준.

○ (연구 목적) 2년 연속 지속된 한국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수출 환경 점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특히, 2017년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수출이 유일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을 둘러싼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 수출 이슈 점검

(1) 2017년 수출 이슈

① (기회요인)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으로 수출 회복 견인

○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

-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신흥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

-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16년 1~10월 기준 선진국 42.5%, 신흥국 57.5%으로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상황
- 그러나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로 2014년 이후 對선진국 수출증가율보다 對신흥국 수출증가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

- 2017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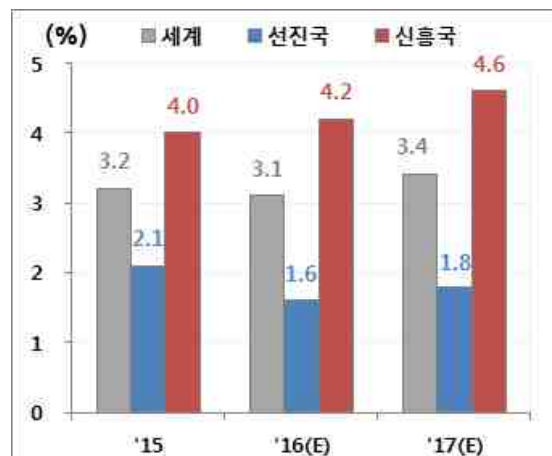
- IMF는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6년 대비 0.3%p 상승한 3.4%로 전망한 가운데, 신흥국의 경제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교역증가율은 2015년 2.6%, 2016년 2.3%에서 2017년 3.8%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선진국과 신흥국 수출 비중 >



자료 : KITA.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2016.10).

② (기회요인) 원화 약세 가능성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2017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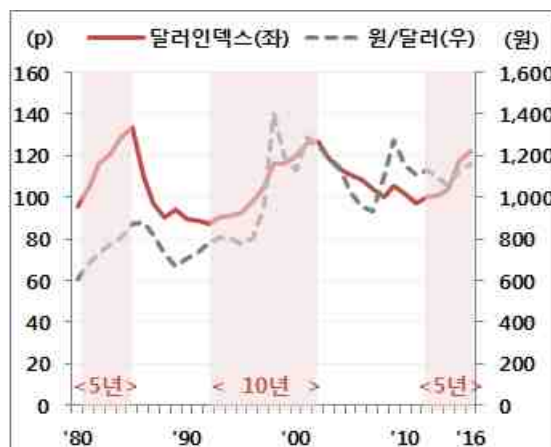
-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인상 예상 등으로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

- 2016년 12월 2일 원/달러 환율은 1172.6원으로 9월 이후 상승세 지속
- 향후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계획되고 있어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 가능성 등으로 연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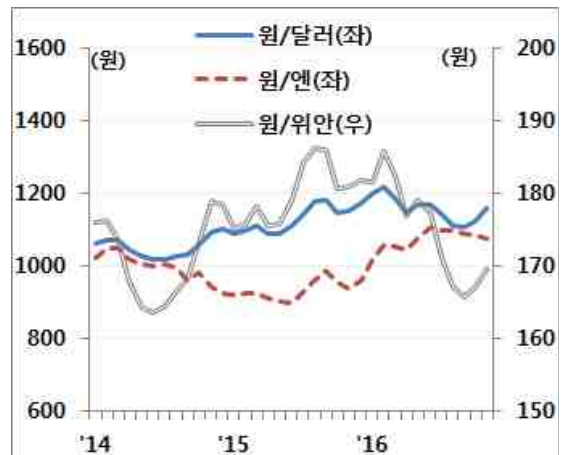
-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
- 또한 미국은 달러 강세가 5년째 지속되며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환율 조작국 지정 정책을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을 견제
-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후 100일 간 우선 추진 과제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언하고 있어 향후 위안화 가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전개될 우려
- 이는 위안화와 일정 부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7년 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

<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장기추이 >



자료 : FRB, 한국은행.

< 원/달러, 원/엔, 원/위안 추이 >



자료 : Bloomberg.

③ (기회요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귀환과 수출단가 상승 압력 발생

○ 미국 경기부양 의지, 중국 공급과잉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기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압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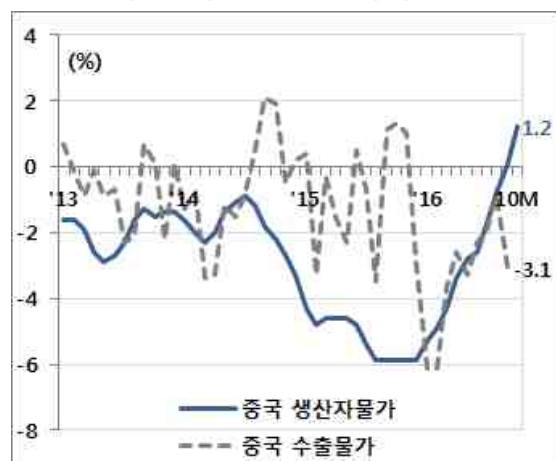
- 미국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강화
 -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시 주요 지표로 삼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16년 10월 전년동기대비 1.7%로 물가 목표치 2%에 근접
 - 미국 신행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확대
-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한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중국 생산자물가는 2016년 9월 전년동기대비 0.1%로 4년 7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10월에는 9월 대비 1.1%p 확대된 1.2%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4년 10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중국내 구조조정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생산자물가 반등
-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출 단가 상승시 구매력을 제약해 수출 물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 물가 상승률 >



자료 : Bloomberg.

<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 >



자료 : Bloomberg.

④ (위협요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 회복세 제약

○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한국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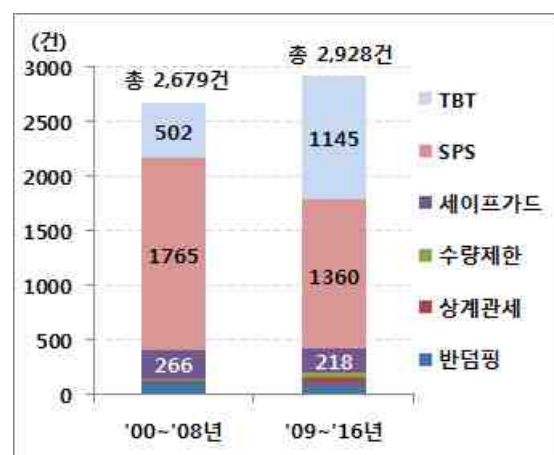
-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
 - 이 중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이 48.2%로 점점 상승하는 추세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
 - 트럼프는 對중국 무역수지 축소, 자국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의 관세 부과 등을 주장
 - 최근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 조치는 누적기준으로 2000~2008년 2,679건에서 2009~2016년 2,928건으로 증가
 - 중국에 대한 견제로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도 미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무역 체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

<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



자료 : 미국 상무부.

< 미국의 對중국 보호무역조치 >



자료 : WTO I-TIP.
주 : 2016년은 8월까지 누적 기준.

⑤ (위협요인) 트럼프노믹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¹⁾로 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우려

-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다자간 FTA보다는 미국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강조
 -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할 예정이었던 TPP는 미국 탈퇴시 해체 가능성도 제기
 - 이미 베트남이 TPP 비준 절차를 중단하는 등 미국의 탈퇴로 다른 회원국들도 TPP 동반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 TPP 표류는 양자간 FTA에 집중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 악영향도 우려
 - TPP 원체결국이 아니었던 한국에게 TPP표류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기회를 저지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그러나 미국 신행정부가 TPP 대신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다면 한국 역시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의 악영향이 우려

< TPP 참여 국가 >

| | 내용 |
|-----------------|--|
| 성격 | 다자간 협정 |
| 참여국 (총 12개국) |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
| 역내 GDP | 27조 7189억 달러(전세계 37.1%) |
| 對세계 교역규모 | 9조 4894억 달러(전세계 25.7%) |
| 협정내용 | 국유기업 우대조치 제한, 지식재산권 보호, 보조금 금지 등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 | 국가 |
|--------------|--|
| 발효 | 미국, 중국, 칠레, 싱가포르, EFTA ²⁾ , ASEAN, 인도, EU,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
| 협상중 | 한중일 FTA, RCEP ³⁾ , 중미 ⁴⁾ , 에콰도르, 이스라엘 |
| 협상재개 여건조성 |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 ⁵⁾ |
| 검토중 | MERCOSUR ⁶⁾ , 말레이시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용어.

2)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
 - 첨단 제조업 육성, 제조업 활동을 위한 사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계획을 발표했던 미국 현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제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음
 -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인프라 투자 정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대응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가전,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전망
 -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8.2%, 8.9%(2015년)를 차지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중국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의 보복관세 부과를 주장
 - 위와 같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이 중국과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가전 산업의 경우 일부 타격이 예상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존재하나, 이는 한국산 수출 확대 및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대응 가능
 - IT 산업의 경우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와 관련된 제조업 부활을 더 강조했으며, 한미FTA 재협상이 추진되더라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들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철강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나, 미국이 자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철강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미국산 에너지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추진⁸⁾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수요 위축으로 태양광, 2

3)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4)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과라 등 총 6개국으로,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함.

5)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중동 지역 6개국.

6)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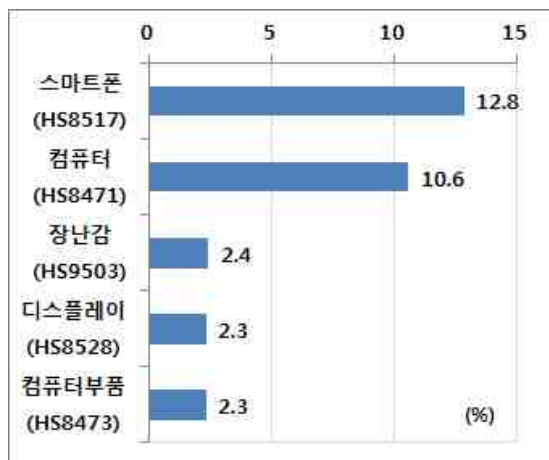
7) 러스트벨트(Rust Belt)란 과거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지대를 의미.

8)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는 한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유도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

차전지 등 산업도 타격을 입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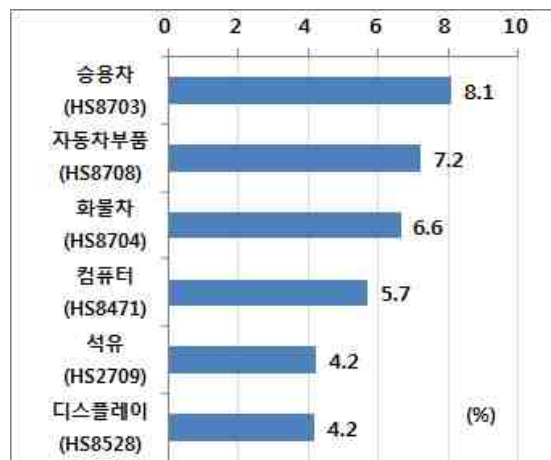
-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무역 규제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 무역 상대국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주의 이슈는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할 가능성

< 미국의 對중국수입 상위 품목 >



자료 : KITA.
주 : 2015년 기준, HS4단위 기준.

< 미국의 對멕시코수입 상위 품목 >



자료 : KITA.
주 : 2015년 기준, HS4단위 기준.

(2) 2017년 수출 전망

- (이슈 정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이슈들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 등이 가져올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
- 신흥국 중심의 성장세, 원화 약세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은 2017년 한국 수출 회복에 긍정적
-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노믹스 확대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이슈로 작용

○ (2017년 수출 전망) 2017년 수출은 일부 통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돼 회복 국면에 들어설 전망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압력 등에 힘입어 2017년 수출은 2년간의 부진을 넘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노믹스 확산 등 통상 리스크,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은 수출 회복을 제약할 우려

< 2017년 수출 이슈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2017년 수출 이슈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평가 |
|--------------------|------------------------------|----|
|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 | - 신흥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에 유리 | + |
| 원화 약세 가능성 | -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 + |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귀환 | - 수출단가 상승 압력 발생해 수출 금액 증가 | + |
| 보호무역주의 강화 | -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한국 수출 업종 타격 | - |
| 트럼프노믹스 확산 | - TPP 표류로 일본의 가격경쟁력 강화 기회 저지 | + |
| | - 한미FTA 재협상 압력 | - |
| | - 가전, 태양광, 2차 전지 산업 타격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3. 시사점

첫째, 국내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2017년도 수출은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소비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견조한 수출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예상되는 수출 하방 리스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및 산업계의 대외 수요 확보 노력이 필요

둘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2017년에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신흥국 경제는 그동안의 부진한 모습을 넘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필요한 시점
-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 베트남, 이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특히 한중FTA 활용, 중국의 소비시장 및 서비스시장 공략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경기 회복에 힘써야 함

셋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협상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향후 통상 마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
- 특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국 정부와의 통상 채널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보호무역 대처를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

넷째,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시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 제조업 수요 회복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세계 및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 질 것에 대비
-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 우위 요소 점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다섯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신흥국 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원화 가치 급락을 방지
-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외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유동성 관리 강화 등 단계별 조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